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지능 간 관계 : 성별에 따른 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Resilience by Gender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오지현(Oh Ji-Hyun)¹⁾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pathways from matern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o children's emotion intelligence through children's resilience by gender.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413 elementary school 4th-6th graders (of which 214 were boys, and 199 were girls).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atern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children's resilience and level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T-tes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the case of the male group, it was found that maternal emotion coaching, when done indirectly, but not directly, had an influence on their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female group, it was found that emotion coaching, when done indirectly, as well as directly, had an influence on their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refo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ildren's resilience mediated the effects of maternal emotion coach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It also found that there are distinct pathways from matern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o emotion intelligence through resilience by gender.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 본 논문은 오지현(2013)의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자료 수집 당시 함께 추출된 데이터로 분석한 것임.

¹⁾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Oh Ji-Hyun,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501-759, Korea
E-mail : ojh@chosun.ac.kr

Keywords :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탄력성(resilience).

I. 서론

정서지능은 아동의 건전한 성격형성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그리고 인간의 성공과 건강,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im, 2002; Park, Choi, & Park, 2000).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발생시키고 정서적·지적 성찰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Salovey & Mayer, 1990, 1996). Salovey와 Mayer(1990)에 의하면 정서지능은 아동의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 학업성취의 성공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으며(Park, 2008; Seo & Lee, 2008),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학습활동 및 학교 행사에 잘 참여하는 반면 정서지능이 낮은 아동일수록 이러한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다(Kwon, 2003).

지각관련 두뇌 영역이 유아기에 성장이 거의 완성되지만 정서적인 측면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사춘기 후반인 16~18세에 이를 때까지 성장을 계속한다. 아동기의 경험들은 정서지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서능력의 틀을 형성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Goleman, 1995). 이렇듯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지능지수(IQ)에 반해 정서지능(EQ)은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능력은 부모와 자녀 간 원만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Mayer & Salovey, 1996). 즉,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력이 높은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중요한 외적 환경이며 자녀의 정서능력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Chung, 2008; Goleman, 1995)를 토대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능력과 정서지능 간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Jun & Yoo, 2006; Lee & Kim, 2001; Park, Choi, & Park, 2000; Park & Kim, 2005).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양육행동은 의미가 포괄적이고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나타나 보다 구체적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주목하였다(Cho, Doh, & Kim, 2010;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정서지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본 연구는 아니지만 후기 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능력 간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Yap, Allen, & Ladouceur, 200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고 지도 할수록 아동 및 청소년의 분노 정서 조절과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능력이 증진되며 이를 통해 공격성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감소됨을 밝혔다(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Valiente, Lemery-Chalfant, & Reiser, 2007). 반면에 아동의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정서표현에 대해 엄격하

고 통제적인 어머니의 태도는 자녀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Albrechi, Burleson, & Golemsmith, 1994; Eisenberg & Fabes, 1992; Goleman, 1995; Seo & Lee, 2008).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적응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비지지적인 반응은 자녀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결여시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내적 긴장과 갈등을 적절히 늦추거나 해소하며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가는데(Bernstein & O'Neill, 1992),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 기제가 탄력성이다. 탄력성의 개념은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간주하며 고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보통의 적응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Masten, 1999). 탄력성은 위험에 처해 있는 개인이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후에도 잘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Bonanno, 2004; Brooks & Goldstein, 2003). 개인이 불행한 사건과 위험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복해 가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성의 관점은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는 자아탄력성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Masten, 2001). 자아탄력성은 실질적인 불행에 노출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개인의 성격특성인 반면 탄력성은 개인의 역동적 과정이며 용어의 정의에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Schoon, 2006). 특히 아동

기의 탄력성은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Ju & Lee, 2007),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노력과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관련된 동시에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을 요구하는 과정을 뜻한다. 아동의 적응과정을 탄력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아동의 탄력성에 기여하는 환경적 요인 또한 부모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Cicchetti & Garmazy, 1993). 부모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는 발달적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반면(Sroufe, Carlson, & Shulman, 1993),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Eliker, Englund, & Sroufe, 1992)를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정서반응이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강하며(Block & Kremen, 1996),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서조절 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Tugade & Fredrickson, 2004).

요컨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자녀의 정서지능과 관련성이 높으며 아동의 탄력성은 매개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들(Han & Lee, 2004; Han & Son, 2004; Kim, 2000; Kwon, 2005; Lee & Chung, 2002; Lim & Park, 2002; Park & Ahn, 2006)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정서반응과 아동의 정서능력에 대한 차이를 밝히

고 있다. 즉, 부모들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지만(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기대가 다르고,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반응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 Son, 2004; Kim, 2000; Kwon, 2005; Lee, 2007; Lee & Chung, 2001; Lee & Yoo, 1999). 예를 들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연구에서 어머니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비난 또는 처벌적 반응과 최소화 반응을 많이 보였고(Eisenberg, Fabes, & Merphy, 1996; Kwon, 2005; Sung, Choi, & Lee, 2007), 남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통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0; Kim, Doh, Kim, & Park, 2007).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 및 최소화 반응은 남아의 회피 대처 행동 및 낮은 사회적 기능과 관련이 있었다(Eisenberg, Fabes, & Merphy, 1996). 또한 여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Lee & Chung, 2001), 문제중심적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의 위로하기 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Eisenberg, Fabes, Carlo, Speer, Switzer, Karbon, & Troyer, 1993).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모의 정서반응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이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이 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Koh & Kim, 2013; Kim & Oh, 2011; Lee & Park, 2002). 아동의 탄력성과 정서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또한 남녀 아동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Romer, Ravitch, Tom, Merrell, & Wesley, 2011; Sun & Stewart,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지능, 탄력성 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예상해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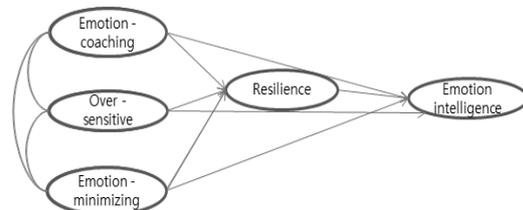
상기한 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과 아동의 탄력성, 정서지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2-1. 남아 집단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2-2. 여아 집단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Figure 1> Research model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연령층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켜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시기에 속하며, 청소년기보다 부모의 양육 행동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Cha, Doh, & Choi, 2010)에 근거하였다. 또한, 후기 아동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의 정서발달 과정의 중요한 시점으로(Goleman, 1995), 자신이 시도하는 정서조절의 내적과정을 이해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정서적 자극에 대한 표현이나 전략이 안정되기 시작한다는 발달적 관점(Chung, Chung, & Lim, 2008)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과 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4~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41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214명(51.8%), 여학생이 199명(48.2%)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초등 4학년이 136명(32.9%), 5학년이 137명(33.2%) 6학년이 140명(33.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230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상은 159명(38.5%), 전문대학 졸업 17명(4.1%), 중학교 졸업이하는 7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40세 미만이 113명(27.4%), 40에서 50세 미만이 288명(71.4%), 50세 이상이 12명(2.9%)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한 어머니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Oh(2013)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이며 감정코칭 반응, 과민 반응, 감정 축소 반응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감정코칭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정서를 공감하는 반응과 더불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 주는 특징을 나타낸다. 과민 반응은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 수준보다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어머니가 보이는 태도이며, 마지막으로 감정축소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자녀의 감정은 무시한 채 상황중심으로 판단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반응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결과 감정코칭 .92, 과민 반응 .73, 감정축소 반응 .82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Moon(1996)이 제작한 자기 보고식 초등학교 3~6학년용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7문항이며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결과 정서인식 .85, 정서표현 .76, 감정이입 .78, 정서조절 .91, 정서활용 .76으로 나타났다.

3) 아동용 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Ju와 Lee(2007)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아동용(초등학교 4~6학년) 탄력성 척도(Resilience Scale for Children: RSC)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30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자기 효능감, 부정적 감정의 인내,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 자발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서 탄력성(resilience)이란 한 개인이 의미 있는 불행한 사건과 역경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기의 탄력성은 그들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속상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노력과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관련되는 동시에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을 요구하는 과정을 뜻한다(Ju & Lee, 2007).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 .90, 부정적 감정의 인내 .90, 긍정적 지지관계 .81, 통제력 .89, 자발성 .8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각 학교 교사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학교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교사에게 설문지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설문지를 보내고 전화로 교사에게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우편과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다. 총 4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430

부를 회수하였는데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413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0.0을 이용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TLI, IFI, CFI, RMSEA)를 살펴보았다. 이 적합도 지수들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료에 잘 부합하고 간명한 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TLI, CFI, IFI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RMSEA의 경우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ong, 2000). 또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Woo, 2012),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탄력성, 정서지능의 성별에 따른 차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과 아동의 탄력성, 정서지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민 반응, 감정축소 반응, 탄력성 하위변인, 정서지능 하위변인 및 총점에서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구조모형 분석에

<Table 1> T-test by gender of emotion-coaching reaction, over-sensitive re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Variables	Male <i>M(SD)</i>	Female <i>M(SD)</i>	<i>t</i>
Emotion-coaching reaction	30.96(8.10)	32.38(9.21)	-1.66
Over-sensitive reaction	13.66(3.73)	12.57(3.56)	3.02**
Emotion-minimizing reaction	14.32(4.68)	13.33(4.93)	2.09*
Resilience			
1. Self-efficacy	27.81(7.14)	28.44(6.90)	-.91
2. Endurance of negative emotion	27.34(7.52)	28.60(5.98)	-1.89*
3. Positive supportive relationship	14.19(3.16)	14.67(3.57)	-1.44
4. Power of control	21.59(4.89)	22.23(5.01)	-1.31
5. Spontaneity	13.99(3.61)	14.68(3.31)	-2.02*
6. Resilience sum	104.92(24.73)	108.62(22.63)	-1.58
Emotion intelligence			
1. Emotion-awareness	19.56(3.50)	20.24(3.25)	-2.03*
2. Emotion-expression	16.79(3.06)	17.15(2.78)	-1.24
3. Empathy	14.47(3.33)	14.90(3.29)	-1.33
4. Emotion-regulation	32.93(7.40)	34.64(6.08)	-2.57**
5. Emotion-utilization	15.44(2.70)	15.68(2.67)	-.93
6. Emotion intelligence sum	99.20(14.07)	102.62(13.09)	-2.56**

* $p < .05$. ** $p < .01$.

있어서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을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측정모형의 타당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 즉,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는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당성들의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집중타당성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수렴타당성

이라고도 하며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요인부하량은 최소 .5 이상이 되어야 하고 .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07).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이 이에 해당하였으나 과민반응의 13번 문항이 .29, 정서지능의 정서표현 문항이 .01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 삭제한 후 재분석하였고 그 결과,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

〈Table 2〉 Convergent validity

Lat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β	S.E	t	C.R	AVE
Emotion coaching reaction	1	.66	.096	8.814***	.91	.51
	4	.74	.087	10.687***		
	7	.70	.094	10.758***		
	8	.64	.089	9.219***		
	11	.84	.083	12.904***		
	12	.78	.089	11.487***		
	15	.77	.079	11.023***		
	16	.73	.083	10.553***		
	19	.71	.091	10.408***		
	20	.78	Fix	Fix		
Over-sensitive reaction	2	.68	.113	8.052***	.71	.39
	9	.67	.113	7.513***		
	5	.70	.119	8.321***		
	17	.68	Fix	Fix		
Emotion-minimizing reaction	3	.64	.133	6.240***	.82	.44
	6	.78	.148	7.650***		
	10	.67	.145	7.388***		
	14	.62	.157	6.361***		
	18	.61	.137	7.138***		
	21	.67	Fix	Fix		
Resilience	Self-efficacy	.94	Fix	Fix	.90	.64
	Endurance of negative emotion	.92	.031	33.608***		
	Positive supportive relationship	.88	.018	22.030***		
	Power of control	.93	.024	26.124***		
	Spontaneity	.83	.020	22.021***		
Emotion intelligence	Emotion-awareness	.59	Fix	Fix	.89	.65
	Empathy	.65	.112	8.226***		
	Emotion-regulation	.90	.268	10.806***		
	Emotion-utilization	.62	.090	7.876***		

*** $p < .001$.

(AVE)가 높다는 것은 해당하는 요인에 대한 측정문항들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개념 신뢰도는 .7 이상, 평균분산 추출지수는 .5 이상이면 만족스러운 만한 집중타

당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Woo, 2012). 본 연구에서는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구하는 공식(1)으로 계산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념 신뢰도(CR)는 감정코칭

반응 .91, 과민 반응 .71, 감정축소 반응 .82, 탄력성 .90, 정서지능 .89로 높게 나타났다. 단, 과민 반응과 감정축소 반응 변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5 이하로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이상이고 개념 신뢰도(C.R) 역시 모두 .70이상으로 높게 나와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잠재변인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을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탄력성과 정서지능 개념들 간의 판별타당도를 이론적 근거와 통계적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선행연구들(Block & Kremen, 1996; Kosmitizki & John, 1993; Tugade & Fredrickson, 2004)의 이론적인 근거를 고려해볼 때 두 구성개념은 독립된 구성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온 바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두 변인 간 판별타당도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자유모델(free model)과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간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두 구성개념 간 상관을 1로 고정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자유모델 간 χ^2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두 모델 간 χ^2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이다(Woo, 2012). 분석 결과, 자유모델의 경우 $\chi^2 = 1818.4$, $df = 734$ 이며 탄력성과 정서지능의 공분산을 제약한 제약모델의 경우 $\chi^2 = 2601.8$, $df = 736$ 로 두 모델 간 $\Delta\chi^2 = 783.4$ 로 유의적인 차이($\Delta\chi^2 = 5.99/df = 2$,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델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아집단의 경우 χ^2 값은 703.636 ($df = 367$, $p = .000$), TLI .902, IFI .912, CFI .911, GFI .813, RMSEA .066으로 나타났고, 여아집단의 χ^2 값은 780.116 ($df = 367$, $p = .000$), TLI .890, IFI .900, CFI .901, GFI .811, RMSEA .071으로 나타났다. GFI 값이 약간 낮지만 TLI, IFI, CFI, RMSEA 값이 양호하

<Table 3> Fit indicates of observed models

Fit indicates	χ^2	df	χ^2/df	TLI	IFI	CFI	GFI	RMSEA
Male (n = 214)	703.636	367	1.917	.902	.912	.911	.813	.066
Female (n = 199)	780.116	367	2.126	.890	.900	.901	.811	.071

$$1) \text{ 개념신뢰도}(C.R) = \frac{(\Sigma \text{표준적재치})^2}{[(\Sigma \text{표준적재치})^2 + \text{측정변수의 오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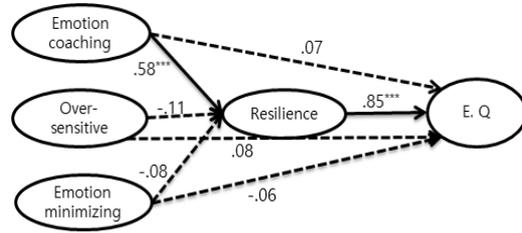
$$\text{평균분산추출지수}(A.V.E) = \frac{(\Sigma \text{표준적재치})^2}{[(\Sigma \text{표준적재치})^2 + \text{측정변수의 오차합}]}$$

게 나타나 연구모델이 표본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모델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1) 남아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남아집단에서의 경로계수 결과를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알아보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 과민 반응,



〈Figure 2〉 Path model by male group

감정축소 반응은 모두 남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감정코칭 반응이 탄력성을 통해 정서지능으로 영향을 미치는

〈Table 4〉 Path estimate of latent variables

(N = 214)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
Emotion coaching reaction → Resilience	2.639	.584	.481	5.489	***
Over-sensitive reaction → Resilience	-.468	-.107	.403	-1.160	.246
Emotion-minimizing reaction → Resilience	-.419	-.077	.446	-.938	.348
Resilience → Emotion intelligence	1.781	.854	.131	13.576	***
Emotion coach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635	.067	.651	.975	.329
Over-sensitive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741	.081	.573	1.293	.196
Emotion-minimiz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712	-.063	.631	-1.129	.259

***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redicting emotion intelligence from emotion coaching reaction, emotion-minimizing reaction and resilience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Emotion coaching reaction → Resilience	.58		.58
Over-sensitive reaction → Resilience	-.11		-.11
Emotion-minimizing reaction → Resilience	-.08		-.08
Resilience → Emotion intelligence	.85		.85
Emotion coach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07	.50* (p = .014)	.57
Over-sensitive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08	-.09	-.01
Emotion-minimiz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06	-.0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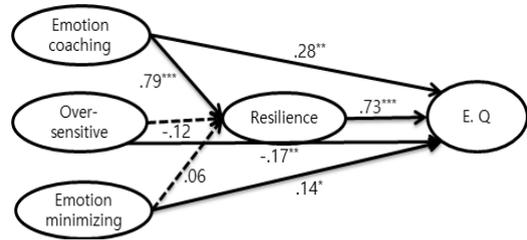
*p < .05.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은 탄력성에($\beta = .58, p < .001$), 탄력성은 정서지능에($\beta = .85,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의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즉, 남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코칭 반응을 보일수록 남아의 탄력성은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은 남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여아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여아집단에서의 경로계수 결과를 Table 6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알아보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beta = .28, p < .01$), 과민 반응($\beta = -.17, p < .01$), 감정축소 반응($\beta = .14, p < .05$)은 모두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Figure 3> Path model by female grou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정코칭 반응이 탄력성을 통해 정서지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은 탄력성에($\beta = .79, p < .001$), 탄력성은 정서지능에($\beta = .72,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의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즉, 여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코칭 반응을 보일수록 여아의 탄력성은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은 여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6> Path estimate of latent variables

(N = 199)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
Emotion coaching reaction → Resilience	2.364	.788	.302	7.819	***
Over-sensitive reaction → Resilience	-.468	-.117	.260	-1.800	.072
Emotion-minimizing reaction → Resilience	.194	.060	.228	.851	.395
Resilience → Emotion intelligence	1.547	.725	.187	8.281	***
Emotion coach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1.797	.281	.591	3.040	**
Over-sensitive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1.435	-.168	.505	-2.844	**
Emotion-minimiz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940	.136	.432	2.176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redicting emotion intelligence from emotion coaching reaction, emotion-minimizing reaction and resilience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Emotion coaching reaction → Resilience	.79		.79
Over-sensitive reaction → Resilience	-.12		-.12
Emotion-minimizing reaction → Resilience	.06		.06
Resilience → Emotion intelligence	.72		.72
Emotion coach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28	.57** (p = .008)	.85
Over-sensitive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17	-.09	-.25
Emotion-minimiz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14	.04	.18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과 아동의 탄력성, 정서지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남, 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탄력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 중 과민 반응, 감정축소 반응과 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감정의 인내, 통제력, 그리고 정서지능 하위변인 중 정서인식, 정서조절 및 총점에서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서 여아보다 남아에게 어머니가 과민 반응과 감정축소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비난 또는 처벌적 반응, 최소화, 고통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들(Chung, Lim & Kim, 2011; Kim, 2000; Kim et al., 2007; Kwon, 2005; Sung et al., 2007)을 지지한다. 단, 감정코칭 반응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남녀 차이 없이 부정적 반응보다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어머니가 보다 수용적이고, 문제중심적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Eisenberg et al., 1993; Lee & Chung, 2002)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정서를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양육관의 변화와 더불어 소자녀 보편화의 영향으로 남아, 여아를 구분하지 않고 자녀의 많은 부분을 존중하고 수용해주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Chung et al., 2011)를 반영하는 결과로 예상하는 바이지만 추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적 감정의 인내, 통제력, 정서인식, 정서조절 및 총점에서는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능력이 뛰어나고 이타심, 공감 능력이 여아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

구들과 일맥상통한다(Han & Lee, 2004; Lee & Kang, 2001; Lim & Park, 2001).

둘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지능 간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해본 결과 남아, 여아 집단 모두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며 ‘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집단의 경우, 감정코칭 반응이 탄력성을 통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모형의 형태를 보였다. 즉, 남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코칭 반응을 보일수록 남아의 탄력성은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여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 중 감정코칭 반응은 탄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또한 유의한 부분매개 모형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코칭 반응을 보일수록 정서지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아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이는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코칭 반응의 직접적 영향보다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이는 아동의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인성 지향적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내적 자원인 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Yang & Yang, 2013)와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탄력성을 통해 정서지능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앞서 변인

에 대한 성차 검증에서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구조모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집단의 경우 어머니 정서적 반응 중 감정코칭 반응만이 탄력성을 통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인 반면, 여아집단은 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 반응 모두가 정서지능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 그 중 감정코칭 반응은 탄력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보여 여아집단이 모-자녀 관계, 탄력성, 정서지능 간에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논의할 만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들은 부족하지만 아동의 탄력성이 정서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차이를 본 연구(Romer et al., 2011; Sun & Stewart, 2007)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Sun과 Stewart(2007)의 연구와 Romer 등(2011)의 연구에서 여아들은 갈등상황에서 탄력성 요인들이 정서,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남아들은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감, 대인관계, 협동능력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Sun과 Stewart(2007)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개인적이고 주도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밝힌 연구(Heyman & Legare, 2004)와 연관시켜 남아들은 갈등상황에서 개인적인 측면에 집중하지만 여아들은 보다 사회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탄력성과 정서능력 간 관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남아는 상황-개인 중심적 특성이, 여아는 정서-관계 중심적 특성으로 인해 탄력성과 정서 및 사회적 능력 간에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여아는 개인 중심적 성향의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부

모-자녀 관계는 여아가 남아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Lee & Park, 2002). 이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요인이 남아보다 여아의 정서지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며, 모의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반응이 많고 적음의 영향보다는 모-자녀 관계역동 자체가 여아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 두려움 등의 정서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려는 방식을 남아에 비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임을 밝힌 연구(Lim & Park, 2000)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과민 반응과 감정축소 반응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지만 남아집단의 구조모형 경로에서는 과민, 감정축소 반응이 탄력성과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 맥락과 같이 남아는 어머니의 과민반응과 감정축소 반응을 개인적 또는 상황적으로 지각함으로써 탄력성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는 바이다. 그 중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감정코칭 반응은 남아의 탄력성 및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예측변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관계 요인을 알아본 연구(Lee & Park, 2002)에서 부모의 다양한 변인이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여아집단과 달리 남아집단의 경우엔 ‘어머니의 애정(돌봄)’ 요인만이 남아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를 통한 비교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하위요인인 과민 반응과 감정축소 반응을 측정하는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가능성 또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지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어머니 변인 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양육행동 또는 의사소통유형과 정서지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유형에 대한 영향을 밝힘으로써 부모교육 및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과 아동의 정서지능 간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의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남, 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성 및 정서지능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어머니와 자녀 간 지각 차이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방법은 주관성을 배제하는데 한계점을 보이므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보고나 전문가의 관찰 등을 통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써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증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References

- Albrechi, T. L., Burluson, B. R., & Goldsmith, D. (1994). Supportive communication. In M. L. Knapp & G. R. Miller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nd Ed.)* (pp. 419-449). Thousand Oaks, CA: Sage.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 Brooks, R., & Goldstein, S. (2003). *Nurturing resilience in our children*. New York: The McGraw Hill Company. New York.
- Cicchetti, D., & Garnezy, N. (1993).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497-783.
- Cha, S. H., Doh, H. S., & Choi, M. K. (2010). The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4), 125-137.
- Cho, S. J., Doh, H. S., & Kim, S. W.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6), 167-183.
- Chung, M. J., Lim, Y. K., & Kim, D. R. (2011). Study of parental reactions to a child's negative emotion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6), 1109-1119.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Speer, A. L., Switzer, G., Karbon, M., & Troyer, D. (1993). The relations of empathy-related emotions and maternal practices to children's comfort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5*, 131-150.
- Eli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R. Parke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l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Erlbaum.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4, Emotion and social behavior* (pp. 119-150).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 Guthrie, K. I.,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e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Erlbaum.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an, Y. M., & Son, K. H. (2004). A study on the mothers' rela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1), 197-206.
- Han, J. H., & Lee, J. S. (2004). The affects of mother-children relationship and teacher-children relationship during preschool and school on children's socio-emotional ability.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 107-108
- Heyman, G. D., & Legare, C. H. (2004). Children's beliefs about gender differences in the academic and social domains. *Sex Roles, 50*(3/4), 227-239.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Jun, J. M., & Yoo, M. S. (2006). Social competence: Effect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3), 225-240.
- Ju, S. Y., & Lee, Y. H.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for children in grade 4 through 6.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2), 91-113.
- Kim, S. J. (2000). The relation among mother's acceptance of emotional expression, children's emotional maladjustment and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W. (200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7*(3), 247-261.
- Kim, E. K., Doh, H. S., Kim, M. J., & Park, B. K. (2007). Social competence: Its relationship to parents' attitudes towards children's expressiveness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3), 115-131.
- Kim, J. Y., & Oh, K. J. (2011). The effect of parental overprotection on depression: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according to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3), 647-661.
- Koh, Y. H., & Kim, S. R. (2013). The influence of mother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and children's resilience on their socio-emot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2), 27-51.
- Kwon, S. E. (2003).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2*(2), 163-176.
- Kwon, Y. H. (2005).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 to children's social behaviors and emotionality. *Korean Journal*

- of *Child Studies*, 26(6), 201-216.
- Lee, E. M., & Park, I. J.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children's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7(1), 3-24.
- Lee, K. Y. (2007). A comparison of reaction between mothers and father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3), 455-463.
- Lee, Y. H., & Kim, H. J. (2001).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and confidence between mother and child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8(1), 103-119.
- Lee, J. S., & Yoo, A. J. (1999). Children's motives and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in angry and sad situ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123-137.
- Lee, J. S., & Chung, O. B. (2002).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Relationships with parent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17-35.
- Lim, H. S., & Park, S. Y. (2002).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37-54.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sten, A. S. (1999). Commentary: The promise and perils of resilience research as a guide to preventive interventions. In M. D. Glantz & J. Johnson (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 (pp. 251-257). New York: Kluwer Academic Plenum.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y*, 56, 227-238.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 361-388.
- Oh, J. H. (2013).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a scale for measuring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6), 97-122.
- Park, S. C., & Kim, S. O. (2005).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school-aged children's strategies and competence of emotion regul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3(4), 35-49.
- Park, Y. Y., Choi, Y. H., & Park, Y. J.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2), 123-134.
- Park, H. Y., & Ahn, R. R. (2006).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used by 3, 4, 5-year-ol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6(4), 351-370.
- Romer, N., Ravitch, N. K., Tom, K., Merrell, K. W., & Wesley, K. L. (2011). Gender differences in positive social-emotional function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48(10), 958-970.
- Salovey, P., & Mayer, J.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 Mayer, J. P.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D.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4). New York: Basic Books.
- Schoon, I. (2006). *Risk and resilience: Adaptation in changing t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o, H. L., & Lee, Y. (2008). The effects of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on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2), 33-56.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 Sroufe, L. A., Carlson, E., & Shulman, S. (1993).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D. C. Funder, R. Parke, C. Tomlinson-Kee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p. 315-34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un, J., & Stewart, D. E. (2007). Age and gender effects on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Promotion*, 9(4), 16-25.
- Sung, M. Y., Choi, I. S., & Lee, K. Y. (2007). Parents' emotional reactions to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s, emotional knowledge, and emotional reaction: A comparison between low-income and middle-income preschool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8), 61-75.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20-333.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 249-267.
- Woo, J. P. (2012). *(AMOS 4.0~20.0) A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equation modeling*. Seoul: Hannarae Academi.
- Yap, M. B. H., Allen, N. B., & Ladouceur, D. (2008). Maternal socialization of positive affect: the impact of invalidation on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Child Development*, 79(5), 1415-1431.
- Yang, H. Y., & Yang, S. E.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erson-oriented guidanc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2), 83-99.

Received May 29, 2014

Revision received July 24, 2014

Accepted August 5, 2014